통권 144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3. 10.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라크 파병 반대!!

지난 10월 11일 오후3시 서울 대학로에서 '1차 범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파병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대학로에는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 학생, 노동자 등 1천 5백여명이 모였다.
오는 25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2차 범국민행동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사진: 민중의 소리〉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 달의 시 곽재구 • 4 / 양심수를 찾아서 조세광 전국철도노동조합 • 5 /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박우용 화물연대노동자 • 8 / 감옥에 보내는 편지 오영순 편집위원 • 9 / 논단-이라크 파병반대 • 10 / 평양 8 · 15민족대회 보고 II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 12 / 회원마당 김현희 회원 • 17 / 칸쿤 취재보고 김도균 회원 • 18 / 회원 역사강좌 보고 손일순 회원 • 23 / 나의삶 나의 일터 이승미 편집위원 • 24 / 시사만화 • 25 / 알립니다 • 26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7 / 여름수련회 결산 보고 • 34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민가협 :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한총련 아직도 이적단체인가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정원,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상투적인 색깔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 시대 그 설자리를 잃고 있던 공안당국이 덩달아 녹슨 국가보안법을 내세우며 11기 한총련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배령을 내리는 등 시대역행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일 공안당국은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또 다시 임의 규정하고 정재욱 의장을 비롯한 지역 총련 의장, 특별기구위원장 등 중앙상임위원급 핵심간부 11명과 5.18 행사 피켓시위와 미군사격장 반전시위 관련 11명 등 2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지명 수배했으며 그밖에 한총련 간부 등 이른바 폭력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24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한총련에 대한 공안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3일에는 최용석 계명대 2003년 총학생회장이 체포영장도 없이 11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불법 강제 연행되었으며 5일에는 경북대 2003년 최성택 총학생회장이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또한 7일에도 김민선 명지대 2003년 총학생회장이 경찰당국에 불법 연행되었고 11일 밤에는 경원대학교 이종남 학생이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는 보안수사대에 의해 폭력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한총련에 대한 이 같은 갑작스런 공안탄압은 현정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결같이 말해왔던 한총련 합법화, 정치수배해제 약속을 스스로 깨고 있는 배신행위이며, 대법원 판례를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면서 공안기구의 연명을 꾀하려는 비열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과 같은 저명한 학생단체가 이적단체로 탄압 받는 것은 답답한 일이라고 했고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도 11기 한총련에 대한 합법적 활동보장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검찰에서는 이런 사실에는 아랑곳없이 '한총련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 느니, '지켜보겠다' 느니 하며 마치 '말을 해서도, 생각을 해서도, 행동해서도 안 된다' 는 묵시적 압력을 가하며 공안당국의 틀에 박힌 냉전교양만을 익히라고, 반인권 행패를 하다가 마침내 11기 한총련에 대해 또 다시 이적단체로 임의 규정하는 관행을 되풀이했다. 참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냉전 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오늘은 반목 대결시대가 아니다. 사상탄압, 분단고착, 냉전대결 시대가 아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더 나아가 자주와 통일로의 이정표를 세운 6.15공동선언 시대이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금강산을 육로로 찾고 있으며 8·15 민족대회를 비롯한 개천절 공동행사, 북녘역사유적답사, 청년경제문화교류단 방문 등 쉴새없이 이런 저런 민족공동행사와 민간교류 사업으로 많게는 1000명이 넘게 육로로까지 남북을 오가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으며 16일부터는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27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찾게 된다. 또한 23일부터 열리는 남북 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축전에 북에서 400여명이 오게 되어 있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에 이은 대규모 남쪽 방문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통신, 편의제공, 금품수수를 하고 서로 고무·찬양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밀물처럼 밀려오는 대세를 반세기전 냉전잣대로 막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은 지 오래이고 사실상 실효성도 사라졌다.

국가보안법이 실효성을 잃은 예로, 최근 해외민주인

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초청으로 재일 한통련 성원과 재독 민주인사들이 아무 조건 없이 고국 땅을 찾은 일이다. 이들은 이적단체로 규정받고 있는 범민련 해외단체 간부들이었고, 특히 한통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받아 그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다. 그러나 저 거센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권위주의시대에 부당하게 잘못 규정되어 피해를 받아 왔던 이들이 이제는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헌신자로 환영을 받으며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공안당국의 아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외세와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자주와 통일시대를 열려는 온 겨레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구 냉전 정치세력과 보수언론들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외세에 기대어 민족의 자주와 통일에 역행하는데 앞장서고, 특히 구차한 기득권 지키기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러한 세력을 배경으로 공안당국은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불안했던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이미 사라져버린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을 강요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더구나 위에서 말했듯이 해외 범민련 성원이 민주통일인사로 환영받고 있는 조건에서도,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 탄압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가고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국가보안법상 처벌규정의 온갖 활동을 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유독 이들에게만 이른바 '북한주민접촉'을 불허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북에 가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터에 오히려 탄압만을 강화하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이러한 탄압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이라크 파병반대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 의한 명분없는 전쟁, 바로 유엔결의 없는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은 온 세계가 규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시한없는 이라크 점령과 석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투병 파병까지 강요하는데 청년학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아니 학생들뿐이 아니었다. 이미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 지난 달 27일엔 수천명이 모여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한국 전투병 파병반대,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성 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반대 9.27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11일에도 이라크 파병반대 제1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제까지 한총련이 반미반전 자주평화 운동을 벌여왔듯이 이라크 파병반대에 앞장설 것은 뻔한 일이었다. 바로 현정권은 그러한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총련 탄압에 포문을 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나 법률가, 교수, 주부, 중·고등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 외치는 것은 괜찮고 유독 한총련만은 안된다는 것인가. 누가 무어라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한총련 학생들이 파병반대에 앞장서고 있는데 환호하고, 스트라이커 부대 반전시위와 굴욕외교 피켓시위에 손뼉을 치고 있었다. 한총련은 스스로 말했듯이 300만 대학생의 대중조직으로 해마다 대학생들의 민주적인 선출절차를 거쳐 당선된 학생회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생 대중단체이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적단체가 될 수 없고 탄압 받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구속학생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11기 한총련 지도부에 발부된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철회하라.

어린 이라크 소녀에게

곽재구 시인

아침 창가에 앉아
조간신문에 실린 너의 사진을 본다

소녀야, 두 발이 잘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아빠의 팔에 안겨 있는
어린 이라크 소녀야

여늬 아침이면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너는 샬롬, 하고 인사하며
가족들의 뺨에 차례로 볼을 부볐겠지
장미빛 한없이 사랑스러웠던 너의 얼굴은
온통 화약 연기에 그을리고

세상의 신비한 풍경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던 너의 총명한 두 눈은
숯덩이처럼 굳게 잠겨
아무런 희망의 빛도 되쏘일 수 없구나

그래, 전쟁광들에겐
전세계 시민들의 꿈과 사랑보다
몇 방울의 석유가 더 소중하겠지
자본의 꿈이 자신들의 핏줄기 형제의 꿈보다 더 싱싱하겠지
한 사람의 미친 독재자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무수한 자국의 청춘들과
또다른 무수한 청춘들의 영혼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음이 얼마나 미친 짓임을
그들은 한 순간도 아파해보지 않았겠지

그것은 우리 시대의 치욕
하나뿐인 지구를 능멸하는 광기

어린 이라크 소녀야
스커드 미사일의 파편에 실려
꿈도 없는 길을 두 발 없이 살아 남아

어디로 걸어가야할지 끝내 알 수 없는 소녀야
지금 우리는 오직 부끄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피빛 너의 두 무릎 앞에
노오란 산수유꽃 한 가지를 바치나니

오, 전쟁은 NO!
저 추악한 자본의 광기도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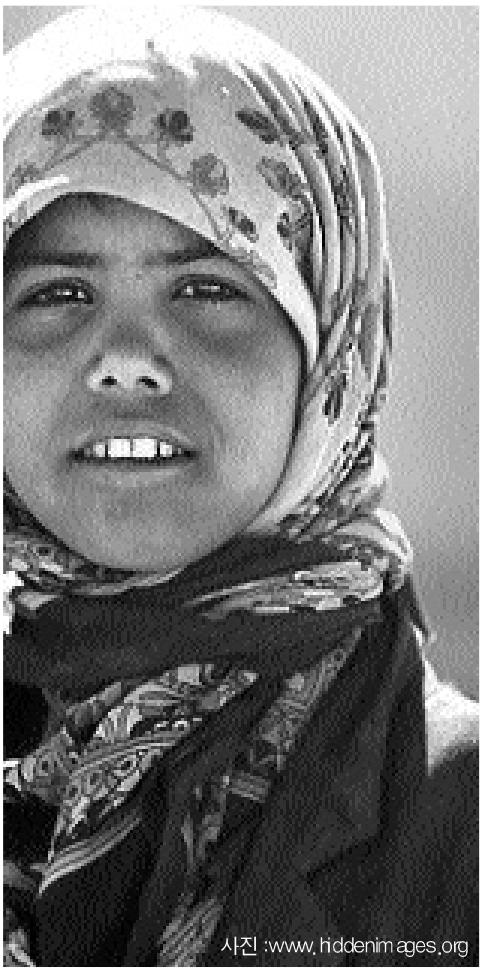


사진 :www.hiddenimages.org

▶ 민족문학작가회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www.minjak.or.kr〉

"아빠, 가족나들이 꼭 가요."

조세광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 시설관리지부장

6월 28일 새벽 연세대. 쏟아져 들어오는 전투경찰 속에 싸여 흔들리는 철도노동조합의 깃발이 찬 공기에 젖어 있었다.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두 달 만에 파기하며 파업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철도노동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철도 노동자들은 연세대의 강제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별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여 산개투쟁에 돌입하였다.

홍덕표 사무처장 〈출처 : 전국철도노동조합〉

파면 · 해임 79명, 고소 · 고발 1,040명

노동계에서는 전국적인 조직, 여러 직종을 갖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2년 만에 세 차례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한 것에 놀라워한다. 하지만 그만큼 철도가 신자유주의 공세의 표적이었고 높은 노동 강도에 신음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이러한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철도기본법과 공단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철도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명령을 내린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선 복귀, 후 협상"이란 조건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파업 복귀 후 약속한 협상은 없이 강도 높은 탄압으로 현장을 질식시키고 있다.

파면 · 해임 79명, 고소 · 고발 1,040명, 징계 9천명, 불법적 가압류 79억…

덕표 형네는 딸 부잣집

하늘이 높다.

안산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엇이 그리 재미난지 하염없이 조잘거리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에 가슴이 무거워 진다.

6 · 28 총파업을 이끌던 홍덕표 사무처장 댁을 방문하는 길이다. 같이 간 형님들과 어머님의 생일선물을 고르고 포도 한 상자를 샀다.

어머님과 형수님, 그리고 보라, 예슬, 고은이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서니 예슬이가 "예슬이 아빠 친구들 오셨다"고 자랑을 한다.

형수님이 덕표형이 구속된 이후로 예슬이는 무엇을 하던지 "아빠가 해줬다"고 자랑을 한다고 한다.

딸 부자인 사무처장의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한글 이름이다.

첫째인 보라는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의 그 빛깔처럼 빨강과 청아한 푸름이 섞이면 보라색이니 열정과 온화를 조화시켜 살아가라는 의미로 보라라 짓고, 둘째는 예쁘고 슬기롭게 자라라고 예슬이 그리고 셋째는 '곱게곱게' 자라라고 고은이라고 이름지었단다.

일주일동안 가족 얼굴 못 보는 삶

형수님께 사무처장의 아이들 사랑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더니 '특별한 사연같은 건 없는데…'라고 말꼬리를 흐리신다.

이야기하다보니 철도노동자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왔음을 뒤돌아보게 한다. 그 흔한 가족사진 하나 없이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예슬이가 태어나고선 지부장에서 본조합 차량분과국장으로 더욱 바빠질 때여서 가족 나들이 한번 여유롭게 다닐 시간이 없었다.

첫애인 보라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생후 백일이 될 무렵 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무처장의 딸 사랑은 보라에 대해 특히 유난하다.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하루 종일 누워있는 보라의 얼굴을 보며 하루의 피곤함을 달랬다고 한다. 사무처장이 구속된 이후 힘든 일 중 하나가 보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길 오면서 보았던 그 아이의 미소가 왜 그렇게 마음 아파왔던지…

보라를 키우며 덕표 형과 형수는 많이 싸웠다고 한다. 철도노동자들은 거의가 24시간 맞교대인 관계로 이틀 외박을 하게 되면 일주일동안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때 한창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한 공투본 투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여서 누구라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철도노조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던 때였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철야작업을 하는 힘든 몸을 이끌고 보라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농성장으로 가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떨어져 있으니 소중한 사람

벌써 결혼 7년차라고 그래서 다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들해지고 소홀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형수님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한 시간 같기도 하다며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 "서로 떨어져 있으

〈사진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

니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하는 계기를 준다"며…

덕표형이 구속되며 형수에게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줬다고 한다. 철도노조 총무차장인 안효경 차장인데, 시간을 내서 형수를 찾아와 말벗이 되주고 바쁜 가운데 집에서 못 챙기는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 일을 처리한다고 은근히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쓴 남편을 자랑한다.

같이 간 형님들과 어머니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큰 절을 올리고 건강하시길 부탁드렸다. 어머니는 사무처장이 구속된 이후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형수와 어머니가 서로 힘들어 할까봐 눈물을 감추며 사셨다고 한다. 어머님은 아들의 구속수감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싶었으나 내 자신이 할말이 없어서 질문하지 못하였다. 인생의 구비 구비 힘든 시기가 없진 않았을테지만 아들의 구속수감은 받아들이기 힘드신 사건이었을 게다.

철도 노동자들은 6·28 총파업을 접고 복귀하라는 철도노조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아직까지 조별체계는 이상이 없고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도부의 생각을 달랐다. 흔들리는 몇 개의 지부가 있고 무엇보다 총파업 이전에 법안 통과 이후의 계획을 세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형수님에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집행부로서 잘 못 한 게 많아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고생시킨다며 안타까워 한다. 사무처장은 하루에도 몇 차례 자신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아직도 되돌아보고 있을 것이다. 보다 폭넓은 연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족 나들이 한번 가는 것이 꿈

요즘 형수가 면회를 가면 사무처장은 온갖 가지 약속을 한다고 한다. 나가서 대공원에 애들과 놀러가자는 둥, 이제 밖에서 자는 일없이 꼭 집으로 퇴근하겠다는 둥,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는 둥 하지만 형수님은 형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게 가장 큰 약속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풀려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이들과 나들이 한 번 같이 갈 것이라고 하신다. 가족사진은 꼭 찍고 싶다나, 아마도 우리와 대화하며 가족사진 한 장 없다는게 아이들에게도 걸렸나 보다.

"보라가 아파서 아이 아빠와 함께 전원주택에서 사는게 꿈이었는데 이제 접었어요, 이제 짤렸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해야할 문제도 많은 걸 아니까요! 하지만 풀려나면 가까운데라도 놀러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사진도 찍고…"

철도노동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피와 땀으로 노반을 받히고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거짓말과 탄압으로 가족과 이별하고 정든 일터에서 쫓겨났다.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약속과 4월 20일의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선 복귀 후 협상' 이라는 약속도 무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철도노동조합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50여년간 가정의 행복을 뒤로한 채 질기게 싸워온 철도노동자들이 있으며 동지애로 가슴 가득히 타인의 아들이기를 자처하는 철도노동자들이 있음을. 그리고 다음에는 '선 복귀, 후 협상' 이라는 감언이설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가지 약속을 가슴속에 새긴다.

전원주택의 꿈을 접게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도노동자들의 꿈 하나 하나를 이루기 위해 또 다시 힘을 내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하늘이 높고 맑다.

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5월 포항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속된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박우용 입니다.

후원회에 감사편지를 쓴다는 것이 너무 늦어졌네요. 두 달쯤 전인가에 권오헌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 부정확으로 반송되어 와서 다시 쓴다는 것이 이제야 쓰게 되네요.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튼튼하다 싶은 체격의 지부장님과 김태영 조합원은 눈병이 나서 며칠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8일 심리는 2주 연기를 해서 10월 2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판사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저희들을 위해 서울서 내려오신 권영구 변호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려오실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게 위로를 하여주신 변호사님을 저희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 전 태풍 매미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지요. 저희들이 있는 이 경주 내남교도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곳이긴 하였으나 그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태풍은 벌써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평온한 아침 하늘도 파랬고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인가 하고 좋아했습니다.

신문이나 오후 취침시간 쯤에 보여주는 TV뉴스에 나오는 바깥세상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더군요. 수많은 수재민이 생겼더군요. 집 걱정, 가족 걱정에 그날 밤은 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저 저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말입니다. 태풍 매미가 울고 간 자리에는 많은 상처가 남게 되었네요. 수재민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하루 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조금 답답하고 자유가 없긴 하지만 이곳은 안전한 편이네요. 이 곳에 계신 분들 말로 "먹을 것 주지, 잠 재워 주지, 도둑 들까봐 지켜주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곳에 오래 있진 않아야겠지요.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폐가 되니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지 않겠습니까? 2주 후가 기다려지는데 그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겠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후원금 잘 쓰고 소식지도 잘 읽어보고 잘 지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경주에서 박우용 씀.

* 추신: 필체 이해하이소. 언제 포항오시면 회하고 소주 쏘겠습니다. 단, 이곳에서 나갔을 때 오이소~

▶ 박우용님은 지난 6월 화물연대파업 관련으로 구속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언젠가 진실 속에 밝혀질 거라고…

"일어나~, 일어나라구! 안 일어나면 죽는다!'

무슨 소리냐구요?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랍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치루는 전쟁이지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은 이 외마디 소리에 채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침부터 작은 소동을 벌인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매우 드문 일, 언제나 엄마인 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이죠. 초등학교 6학년 큰 아들 녀석은 학교로, 여섯 살 박이 작은 아이는 한참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혼자 열쇠로 문을 잠그고 유치원을 가거든요. 우리 가족의 아침 일상은 늘 이렇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아침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뒤쫓아 서둘러 나선 출근길! 사무실 의자에 앉고 보니 오전 8시 5분이네요. 덩그마니 큰 KT 건물 안이 아직은 조금 이른 듯 적막할 정도로 조용한 아침이지만 아마도 20여분이 채 안지나 웅성웅성 해질 거랍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께 편지를 써본다는 건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학창시절 약간의 글재주 때문에 꾀도 피우지 못하고 억지로 군인 아저씨께 위문편지를 써 본 이후로 내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허나 그때와는 분명 편지 쓰는 느낌이 전혀 색다름을 느낍니다. 괜스레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막막하기는 똑같으나, 어쩐지 따스하고, 친밀감이 든다는 느낌말입니다.

왜곡된 물류 체계를 바로잡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벌인 투쟁의 결과는 언론에서 일방적인 편만을 들었기에, 자칫 많은 국민들에게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아픔은 철장 안에 갇히는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고통이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아니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마치 경기 침체가 심화된 양 떠들어댔던 언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 이해됐던 부분은 언젠가 진실 속에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양심수후원회(권오헌) 선생님께 편지를 두 번씩이나 동봉했다는 박우용 님의 편지를 읽고, 사실은 며칠 전부터 답장을 보낸다 한 게 그만, 게으름에 원고 마감일을 넘기고 난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쓰다보니 정성이 메마른 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튼튼하다 싶은 지부장님, 눈병이 나 고생하고 계신다는 김태영 님,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동참으로 아직도 철장 안에 계신 모든 분들 하루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더 많은 '소리' 들을 내시며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볼 수 있길 소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동지들 품에 밝게 웃으며 생활하시는 박우용 님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참! 언젠가 서울에 상경하시거든 양심후원회를 통해 연락주세요. 저 또한 기회가 된다면 쐐주 한잔 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2003. 10. 13 아침에

오 영 순

▶ 오영순님은 '후원회소식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전투병을 이라크에 파병하지 말라

부시정권은 사면초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화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무차별적인 양민학살과 굶주림과 질병, 파괴와 약탈 이것이 미군이 이라크 민중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더 이상 미군을 해방군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외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를 떠나라!" "권력을 이라크 민중에게 넘기라!"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미국은 `제2의 베트남전쟁`의 악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부시정권의 무모한 시도는 파탄났다. 그들은 고백해야 했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연계도 없었다는 것을.

뻔뻔스러운 부시정권은 도덕과 명분을 잃어버린 더러운 침략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유엔의 모자를 뒤집어 쓰려하지만 이라크 주권 이양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은 미국의 이라크 수정 결의안은 폐기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대선에서 재집권을 위해 침략전쟁의 뒤치닥거리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했던 부시정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시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권력내부는 사분오열하고 있다. "부시를 낙선시키자"는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그렇다!

이것이 오늘날 부시정권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사필귀정! 오늘 부도덕한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진 악의 제국은 몰락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시정권에 요구한다. 더 늦기 전에 이라크를 떠나라. 한국정부에 대한 부당한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이라크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하며 조기파병을 선동하려 한 노무현정부와 파병론자의 음모는 파산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리카르도 산체스 조차 "미군이 매주 3~6명씩 사망한다"고 시인했다. 또, "주둔하는 동안 더 많은 사상자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매주 1천 명의 이라크인들이 죽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더욱이 한국군이 파병·배치될 예정지로 알려진 모술 지역은 주요 유전 지대인 데다 쿠르드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다음으로 격렬한 전투지역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부도덕한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보낼 수 없다. 외국군의 점령에 맞서 독립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라크 민중을 학살할 수 없다. 베트남 파병의 그 참담한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 정녕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정녕 침략전쟁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몬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되길 원하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심으로 재신임을 묻겠다면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청부터 거부하라. 이미 파병돼

있는 제마 · 서희 부대도 당장 철수시켜라.

한승주, 운영관, 조영길, 김진표, 정세현 등 파병론자들에게 묻는다. 지난날 이 나라를 송두리째 일제에 팔아 넘긴 '을사오적'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정녕 천추만대를 두고 사대매국노로 낙인찍히는 운명을 선택하려 하는가? 파병을 선동하는 미친 짓을 당장 중단하라.

파병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최병렬, 김종필 등 정치인들과 수구언론에 경고한다. 그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일제하 "황군의 선봉대가 되라"고 선동했던 친일매국노의 말로를 알고 있다면, 미국의 나팔수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이여! 파병반대투쟁 승리의 주역이 되라! 역사의 고비마다 거대한 힘으로 물줄기를 바꾸어 왔던 거대한 힘을 지금 이 순간 발휘하라!

여성들이여!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라!

종교인들이여!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이여! 반전을 선동하라! 평화를 노래하라!

국민들이여!

우리의 투쟁은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모두 전투병 파병 반대운동에 한 몸처럼 떨쳐나서자.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을 물리치자. 미국의 야만적인 학살전쟁을 중지시켜 이라크 민중에게는 희망을, 한반도와 지구촌에는 평화를 깃들게 하자.

오늘 우리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행동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찬반모의 투표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간중심의 2차 현지조사단을 반드시 관철시켜 이라크의 진실을 국민들에 똑바로 알릴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파병거부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파병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을 준엄히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오는 10월 25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전세계 평화애호 세력과 연대하여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제2차 범국민행동'을 거대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10월 11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평양에서 울려퍼진 '우리는 하나'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지난 8월 2일 평양에서는 2003. 8. 15 민족공동행사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실무접촉이 있었다. 대회명칭, 장소, 대표단규모와 일정등이 결정되었다.

2002년 서울에 이어 2003년엔 평양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8 · 15 민족대회의 개막식은 능라도 유원지에서 폐막식은 대성산성 남문 앞에서 열기로 했다.

남측에서 300명, 북측에서 400명, 해외에서 150명의 대회참가단 규모도 결정되었다.

남측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서는 통일연대, 민화협, 7대종단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단체등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나누게 되었다.

통일연대는 중요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가단체마다 한 사람 대표만이 참가하게 되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전화를 통한 운영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이기욱 부회장을 대표로 선정했다. 필자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 몫으로 대표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원래는 김지영 부회장을 송환추진위 대표로 적극 권유했었지만 간곡한 사양으로 필자가 가게 되었지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다. 이 글은 이미 이기욱 부회장이 8 · 15민족대회 보고를 했었기에 그리고 2001년 통일축전때 다녀와 쓴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행사일정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께 보고하기로 한다.

이남에서 이북을 가기 위해서는 관행된 소정의 절차를 밟게 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관계 당국에 내야하고 '방북교육'을 받아야 했다. 8. 13일 향린교회에서 있은 스트라이커부대 반전시위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탄압과 관련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유리 통일연수원으로 갔다. 8 · 15민족대회에 참가할 남측대표단의 방북교육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연대 소속 7명이 방북불허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왜 불허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았다. 이전까지에는 사법계류중이거나 범민련, 한총련 소속 성원들이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

8 · 15민족대회 통일선봉대 이규재 총대장, 통일광장의 임방규 공동대표, 4월혁명회 노중선 공동대표, 서울통일연대 전종옥 사무처장, 인권운동센터 강용주 운영위원, 통일연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박석률 공동대표, 대전 · 충남통일연대 안은찬 집행위원장이 방북교육대상에서부터 제외되고 있었다. 6 · 15남북공동선언시대 그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할 대표단을 냉전과 공안 잣대로 가로막고 있었다.

소정의 시간을 마친 다음, 필자는 늦은 시간, 신촌으로 달려갔다. 2003 회원 여름수련회 준비모임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니 사실은 김호

현 운영위원이 미리 마련해 놓은 송환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게 드릴 선물과 모성룡 운영위원으로부터 캠코더를, 노혁회원으로부터 옴시롱 감시롱 회원이었던 이종, 김선명, 조창손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전해받기 위해서였다. 선물 무게들이 가볍지 않았다. 그 부피또한 만만치 않다. 평양으로 가는 짐꾸러미를 모두 채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희, 김호현, 김길자, 박근직 회원들의 격려지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4일 7시, 수유리 한 동네에 살고계신 박용길 장로님과 함께 따님이신 문영금님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내부순환도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달렸다. 두 분 다 같이 민화협 소속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 하시게 되었다.

공항에서는 이미 많은 대표단이 출국절차를 밟고 있었다. 짐을 먼저 보내고 출국심사대를 거쳐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항공기 앞쪽 09A 1 등석이었다.

9시 50분, 마침내 취재기자단까지 339명을 태운 육중한 몸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고 있다. 곧 안개층을 뚫고 햇볕이 쏟아지는 대기층으로 들어갔다. 게시판에는 시속 681km, 고도는 4718m를 가리킨다. 이륙후 20분쯤 지나 기수를 북으로 돌린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금단의 땅이었던 또 다른 조국 북녘 영공으로 들어섰다. 이때 시속은 740km, 고도는 8500m였다. 기수를 다시 동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10분뒤 기내방송을 통해 안전띠를 매라며 착륙을 예고한다.

10시 50분, 이미 눈에 익은 순안비행장에 내려 앉는다. 맑게 개인 평양의 하늘, 8월의 강력한 태양열이 비행장을 달구고 있다. 낯익은 북측대표단이 비행기 트랩아래에서(안경호, 장재언, 허혁필등) 남측대표단을 맞는다.

울긋불긋 조선옷을 곱게 차려입은 평양시민들이 붉은 꽃묶음을 들고 열렬히 환영한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서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연호하다.

드디어 이기욱 부회장의 캠코더가 작동하기 사작했다. 서울에서 모성룡운영위원으로부터 작동설명을 들었지만 그 시원치않은 설명을 대충들은 이기욱 변호사는 금시 곧잘 기계를 다루고 있음이 신기하기만 하다. 지극히 간단하게 입국수속을 마치고 모두 기념촬영을 했다. 마중나온 아는 북측 일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일 빠질 수 없었다.

남측대표단은 북측 안내에 따라 미리 배정된 버스에 올랐다. 필자는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4호차였다. 이기욱 부회장과는 어쩔 수 없이 차로 옮길 때마다 이별(?)을 해야만 했다.

12시 15분, 버스는 공항을 떠나 평양-순안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 도로는 이미 세 번째이기에 차창밖의 다른 풍경보다는 오히려 가끔 보이는 올해의 벼작황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끌린다. 이미 고개숙인 벼들은 노란 빛깔을 하고 있었다. 좁은 국토이지만 남녘 들판 빛깔과 계절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케 한다.

거의 막히지 않고 달리는 차량대열은 어느덧 금릉굴을 지난다. 왼쪽 멀리 대성산이 보이고 정면으로 금수산궁전이 다가선다. 김일성주석이 생전에 집무했던 건물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다시 고쳐지어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이북 인민들에게 최고의 성지로 되고

있는 곳이다.

궁전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금성거리를 달린다. 왼쪽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길게 서있다. 비파거리-조국해방승리기념관 인민군교예극장이 보인다. 보통강을 끼고 달리는 북새강반거리는 공원처럼 아름답다. 짙은 숲과 도심을 흐르는 강물에는 낚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어 천리마거리로 이어지는 곳에 보통문이 있다.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때 그 서문(西門)으로 건축되었고 1473년에 개축되었다고 한다.

차량대열은 인민문화궁전과 평양체육관을 지나 창광거리를 접어든다. 바로 평양에서 첫손 꼽히는 고려호텔이 있고 음식점이 줄지어 있는 거리이다.

이어 평양역. 역 광장엔 많은 시민들이 보이고 저마다 손을 흔들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평양역 정면 영광거리는 요즘 평양시 개건(?)사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어 역전거리를 지나면 양각도를 가로지르는 양각다리 그 중간에 교차로가 있고 대표단이 묵을 양각호텔로 이어진다. 12시 50분 차에서 내린 대표단은 호텔 일꾼들의 끔찍한 환영을 받는다. 맞받아 손뼉을 치며 '반갑습니다'를 연발한다. 짐은 이미 도착돼 있었다. 대표단은 이미 인천공항에서 건네받은 소속단체와 직함, 이름이 표시된 남측대표단 명패뒤에 숙소, 차량번호, 부문모임 만찬좌석등을 배당받고 있었다. 필자는 37층 5호실이었다. 전빈협 김홍현 의장님과 같은 방이었다. 북측 창문을 열자 방안에 걸려있던 달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바람이 세찼다. 30도를 넘는 8월의 기온을 느낄 수 없었다.

양각호텔이 바로 양각도 맨 상류쪽에 있었기에 대동강이 바로 발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참으로 맑은 강물이었다. 마치 모래알이 보일 것 같은 모습이다. 강동쪽으로 주체탑이 드높이 보이고 맞은편에 김일성광장, 인민대학습당이 그리고 더 멀리에 내일 개막식을 열게된 능라도와 5· 1경기장도 보인다. 모란봉이 보이고 더 멀리는 대성산까지 보인다. 아니 양각호텔의 동서남북창을 열면 평양시 모두를 볼 수 있었다.

37층에는 남측대표단의 지도급인사들이 배당된 듯 싶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의장,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도 같은 층이었고 이기욱부회장도 심재환 변호사와 함께 37층에 한 방을 썼고 민변 최병모회장과 임종인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2시 40분, 2층식당에서 평양일정등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통일연대, 종단, 민화협을 대표하여 한상렬 상임의장, 백도웅 KNCC총무, 윤재철 상임의장의 인사말이 있은 다음 뷔페식 점심식사를 했다. 단음식빵, 남새합성, 양배추생채, 닭고기오이생채, 낙지무침, 소위 볶음, 소불고기, 두부된장찌개, 김치, 미역국, 농어졸임, 밥, 과일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별도로 식탁엔 음료수와 맥주, 소주등이 있어 취향에 따라 식사를 했다.

3시 50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관람하기 위해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호텔을 떠났다.

4호차에는 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소속 한명철, 김용수, 김정수 부원등이 남측대표단들과 얼굴을 익히면서 안내일을 맡고 있었다.

양각다리를 건너 봉은거리-광복거리를 달린다. 광복거리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약 4km에 이르는 10차선의 넓은도로에 길 양쪽으로는 30~40층 아파트가 다양한 형태로 줄지어 서 있었다. 교예극장 광복백화점 등 상점과 문화시설이 함께 건축돼 있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이 거리의 맨 끝 왼편에 자리잡고 있다. 광복거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도로가 2000년에 준공된 청년영웅도로로 남포시까지 이어진다.

만경대구역에 자리한 소년궁전은 연건축면적이 10만 3000여 평방미터로 현관부, 중앙홀 2000석 극장 100여개의 서어클실을 비롯하여 690여 방이 있고 체육관, 수영관등 각 동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내에 따라 서예, 기악, 무용, 자수, 수영 등 학생소년들의 학습과 연습장면들을 견학했다.

대표들 가운데는 서예작품을 주문하거나 학생들을 배경으로 사진찍기에 분주했다. 다시 아래층 분수대가 있는 휴게실에 내려와 쉬는 시간 매점에 들렀다. 자

연경관을 수놓은 수예 한 점을 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뜻밖에도 민족대회에 참가한 해외 대표들도 만나게 되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의장 노길남 민족통신기자, 재미동포 송학삼씨 등이었다. 이날 소년궁전 관람에는 해외동포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어 공연장으로 옮겨 소년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남쪽학제로 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나이의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이 펼치는 노래와 춤, 기악연주 등은 전문 연예인을 뺨칠 정도였다.

민족의 기악과 노래(살기좋은 내나라), 무용-흔들북춤(우리는 하나), 여중창(조선13도가), 독무-패랭이춤, 민요독창-산천가, 만화무용(구름넘어 그리운 장군님께), 가야금과 노래(이것이 제일이다), 민요독창(통일아리랑), 무용(봉선화아리랑), 무용-민속놀이(떡방아찧기), 체조무용(미래 주인공은 우리들이다), 혼성이중창(다시 만납시다) 등 어느 하나 숨죽여 지켜보지 않을데가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밝고 명랑했으며 자신에 차있었다. 움직이는 무대, 변화하는 배경그림이 더욱 공연을 돋보이게 했다. 웅장한 건물 대리석으로 장식된 내부시설 - 그 안에서 저마다 재능을 익히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궁전 앞뜰에 세워진 김일성주석의 친필글씨를 조형화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일 듯 싶다.

관람을 마치고 궁전을 떠나는 대표단들은 어린 천사들의 배웅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안내자의 재촉에 아랑곳없이 어린 귀염둥이 천재들과 사진찍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퇴근시간이어서인지 광복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바쁜 모습이다. 단일기를 흔들고 있는 대표단들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 길 양쪽에는 궤도전차가 퇴근길 시민들을 가득가득 싣고 달린다.

광복거리를 거쳐 청춘거리를 들어섰다.

태권도전당, 수영경기장, 배드민턴경기관, 역도관, 배구관, 농구관, 탁구관, 핸드볼경기관, 중(重)경기관, 경(輕)경기관, 서산축구경기장까지 각종 체육경기장

이 가득차 있다. 안골 인터체인지를 지나 보통강다리를 건넌다.

대동강 건너 쑥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쑥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김일성주석이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한 남쪽대표단과 협의회를 열고 휴식을 했던 곳으로 특히 김구선생과 함께 타고 건넌 나무배를 잘 보존시키고 있고 남북지도자 명단을 새긴 통일전선탑이 세워져 있다.

평천강거리를 지나 충성의 다리를 건넌다.

다리 상류쪽 강가에 '푸에블루호' 가 정박돼 있었다. 다 알다시피 이 미국 첩보선은 1968년 1월 23일 원산앞바다 영해까지 들어와 첩보활동을 하다 인민군 초계정에 붙잡혀 왔던 미국으로서는 해군사상 106년만에 처음 당하는 치욕이기도 했다.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으로는 앞서 말한 쑥섬이 있고 교차로를 돌아 왼쪽으로 가면 유명한 통일거리이다. 광복거리와 같이 고층 살림집들이 즐비한 거리였다. 이곳에도 길 양쪽으로 궤도전철이 깔려있었다.

대표단을 태운 버스는 평양단고기집으로 들어섰다.

대표단은 1, 2층에 나누어 자리를 잡고 저녁식사를 했다. 남쪽에서 보신탕 요리와는 사뭇 다르다. 갈비로 시작하여 가장 인기(?)있는 부위까지 차례로 들어왔다. 좋은 술과 안주가 있으니 자리마다 술기운이 돌고 축배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흥겨운 노래도 흘러나왔다. 이 단고기집은 노래방시설도 있었다.

2000년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때도 들렀는데 여러 사람들이 노래겨루기를 했었던 기억이 난다.

남북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고있는 김령성 선생이 '심장에 남는사람' 을 가수 못지않게 불렀던 일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탕과 밥이 나왔다. 오늘 일정이 더 이상 없는 터인지라 마음껏 마시고 토론하고 노래부르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8시 30분, 단고기집을 떠나 숙소 양각호텔로 돌아왔다. 아직도 한잔 더 할 사람들은 47층 회전식당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점이나 매점에서 책과 기념품등을 사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은 어두운 평양의 첫날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현재구속되어있는양심수현황

2003년 10월 2일 현재, 총 115명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10월 2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10월 2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29명, 노동자 63명, 재야 및 기타 21명, 군인 1명, 농민 1명이다.

10월 2일 현재 양심수 115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의 14.8%인 17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 ·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770명이다.***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115명	29명	63명	21명 (철거민 11 · 노점상 7)	1명	1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화염병
15명 14.4%	31명 29.8%	37명 35.6%	28명 26.9%	36명 34.6%	1명 1%

기결 · 미결 분류					
구 분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 인	농 민
기결 3명	2명	-	-	1명	-
미결 112명	27명	63명	21명	-	1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 공무집행방해
  업방 : 업무방해

오습복반

김현희 양심수후원회 회원

1.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기억하십니까.
40도 못 채우고 훌훌 떠나버린,
시인 기형도의 「대학시절」 그 첫 행입니다.
그리곤, 이렇게 이어지죠, 아마.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2.
혹시, 버리실 책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지날 수 있는
깊고 아름다운 숲에는 가 본 적이 있나요?
싱싱한 푸른 잎, 혹은 가벼이 마른 낙엽이라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쓰다듬어보신 기억은요?

3.
당신은 청년입니까?
들어본 지 오래된 말이라구요.
저도 불러본 지 오랜만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쑥스럽다구요?
아닙니다.

4.
저희가 마련한 숲에 한 번 와보세요.
버려진 책도, 살아있는 나뭇잎도…
아, 그래서 당신은 아마 눈을 사알짝 감고도
또박 또박 걸을 수 있을 겁니다.

5.
이제 됐습니다.
당신이 거닐게 되어 이 숲은
감히 당신을 청년이라 불러낸 이 숲은
그리하여,
깊고 아름다운 숲이 됩니다.

"WTO가 농민을 죽였다"

김도균 양심수후원회 회원, 민중의 소리 기자

출국을 며칠 앞두고 항공편에 문제가 생겼다. 여행사에서 칸쿤까지 가는 항공편 예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방학이 끝나 캐나다 등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많았던 탓도 있었으나 미국정부가 멕시코로 들어가는 항로를 제한한 이유가 컸다고 한다.

칸쿤투쟁 참가단은 뒤늦게 멕시코로 들어갈 수 있는 항공편을 알아봤고 겨우 대표단과 기자는 캐나다를 거쳐 곧바로 멕시코로 들어가는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참가단 대부분은 대만과 네덜란드 등에 들러 1박을 한 후에야 멕시코로 가는 표를 끊어야 했다.

9월 7일 오후,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농민참가단 기자회견을 마치고 6시 30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9시간 비행을 마치고 캐나다 벤쿠버에 도착하니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기까지 5시간가량 시간이 남았다. 일행은 점심식사를 위해 근처에 있는 강가로 나가기로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리무진 택시를 타고 강변으로 나갔다. 근처 도심에 내려 한인식당을 찾아 헤매이길 한시간 가량… '육개장'이라고 쓰여진 메뉴를 발견했을 때 그 반가움이란…

밥을 먹고 첫기사와 영상을 편집해 전송하니 멕시코행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다.

사실 이번 각료회의 취재를 준비하기전, 정확히 말해 올해 초,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는 칸쿤을 모르고 있었다. 칸쿤에 도착한 후에야 숙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지도를 보고서야 칸쿤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따라가다보면 멕시코 만을 감싸고 밖으로는 카리브해에 접한 유카탄 반도, 그 남쪽끝을 따라가다 보면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펼쳐지면서 세계적인 휴양지로 이름난 칸쿤이 눈에 들어온다. 화려한 세계 유명 관광호텔들이 즐비한 해변을 따라 낯선 이국의 풍경이 펼쳐진다.

칸쿤의 온도와 습도는 한국에서 느끼던 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공항문을 나서자 팔과 손등에 땀이 맺혔다.

공항주변에 소총을 든 군인들이 경계를 서 있기도 했고 곤봉을 든 현지 경찰들이 순찰을 하기도 했다. 대표단중 누군가가 공항분위기만 봐서는 80년 광주 같다는 얘길 하기도 했지만 공항을 벗어나자 그런 분위기는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았다.

선발대로 도착한 농민참가단의 말에 의하면 각료회의가 열릴 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시내까지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고 있고 군인과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있다고 했다.

멕시코 현지시각으로 9월 8일 낮, 한국 농민대표단 11명이 칸쿤에 도착했고 이어 이틀간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해 200여명 모두가 칸쿤에 도착했다.

농민대표단 환영식

농민들이 논과 밭을 뒤로하고 아스팔트에 선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수입개방 압력, 개방 농정의 거센 파도에 한국의 농업이 쓸려나가고 있었고 한국정부는 공산품수출 등 경제적 실리를 위해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펼칠 뿐 400만 농민이 살길을 안내해 주지 않고 있었다.

한국농민들이 칸쿤에 온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한국농업을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음모를 안고 있는 WTO. 그 기점이 될 이번 각료회의를 막기 위해 한국의 농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쟁단을 꾸렸다. 그들은 더 이상 앉아서 몰려오는 개방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없기에 머나먼 멕시코까지 건너온 것이다.

칸쿤, 9박10일간의 투쟁

2005년부터 발효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여러 분야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전 세계 민중들의 반대여론과 개도국 정부의 반발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꿈꾸는 미국과 초국적자본은 보다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그리며 제 5차 각료회의를 준비해왔다.

첫째날. 9월 8일 /비아캄페시나 토론회 저녁 9시경 HOTEL PLAZA CARIBE

세계농민연대조직인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모여든 세계 각국의 농민대표들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한국농민들은 각료회의를 무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칸쿤에 도착한 한국농민대표단은 토론과 세미나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다소 실망한 듯 했다. 무엇보다도 각료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우고자 먼 이국땅까지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 농민참가단은 각국 농민대표들과 만나 함께 연대해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농업을 무역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어느나라 농민이건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서로의 말과 피부색은 달랐지만 이번 각료회의를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다.

둘째날 9월 9일 /체육관, 개혁광장

칸쿤 시내에서 첫 집회가 있는 날. 농민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상여를 만들었다. 만장도 세웠다. 이대로 앉아만 있다가는 밀려드는 수입개방에 논밭을 모두 갈아엎고 말 것이다.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에 자살하는 농민들은 계속생겨나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농민들이 나서 싸울 수 밖에 없었다. 이날은 WTO를 장례치르는 날이다.

반세계화, 농업을 지키기 위한 각국 민중들을 만나 연대했다. 고향에선 추석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 먼 이국땅에서 건너온 농민들은 상여를 메고 낯선 거리에서 상여소리를 해야 했다.

"한국에서보다 덜 빡센 것 같다. 여기사람들은 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의지를 좀 더 관철시킬 수

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다." 각료회의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들…

"열심히 싸울거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 피해가 많다는데 먼 이곳까지 온 성과를 남겨 돌아가겠다." 고향에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한 농민은 걱정과 안부의 말을 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난히 파란 칸쿤의 저녁하늘 사이로 붉게 노을이 진다. 해지는 모습은 세계 어느곳이나 똑같았다. 풍물소리가 울려나고 만세삼창 울려퍼졌다. "한국투쟁단 만세, WTO저지 만세, 수입개방저지 만세~"

낮에 있었던 상여행렬은 언론의 집중을 받았고 한국투쟁단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그새 한국투쟁단의 단체티를 얻어 입고 'WTO반대' 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외국인들이 보였다.

밤 늦은 시간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협상대표단이 참가단 숙소를 찾았다. 회의개막을 앞두고 농민대표들과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왔다고 했다.

농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없었다. 더 할말이 없어서인지도 모른다. (故이경해씨 발언)

무기력한 정부대표단의 모습에서 어떤 희망도 대안도 찾기 어려워보인다. 뚜렷한 대화의 성과 없이 대표단은 자리를 일어섰다.

앞으로의 싸움은 참가단의 더 높은 각오를 요구할지 모른다.

지구촌 곳곳을 돌아보면 어느 나라나 농민들의 애환과 고통이 있어왔고 그 억눌렸던 농민들의 분노는 거대한 봉기로 일어섰던 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멕시코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농민들, 멕시코의 치아파스… 사파타 농민군의 후예들이 그 정신을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쓰러져가는 농업과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개막식날, 국제농민행동의날

칸쿤에 모인 수만명 투쟁단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농민들이었다.

농업은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자 삶의 근간이다. 농민들은 농업을 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5차 각료회의 개막(9월 10일 오전)

5차 각료회의 개막식 날, 회의가 열리는 컨벤션센터를 찾았다. 경비가 삼엄했고 출입절차도 복잡해졌다.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장 곳곳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그들의 잔치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2005년 발효될 예정인 도하개발의제를 출발시키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DDA는 서비스 의료 농업분야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압력을 불러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같은 시각 시내에서는 국제 농민행동이 시작됐다. 각료회의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경찰의 바리케이트에 가로막혔다. 농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5KM 밖 컨벤션센터에도 들렸을 것이다. 높고 두터운 바리케이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민들의 분노가 칸쿤을 뒤흔들었다. 싸움이 거세지고 함성 소리가 높아졌다.

한국 참가단중 한사람이 바리케이트밑에 쓰러졌다.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렀다.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집회안전을 담당한 젊은이들이 기자들을 떼어내느라 진땀을 뺐다. COBA 거리의 분수대 앞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진 농민은 다급히 실려갔다.

그리고 싸움은 계속되었다. 분노한 농민들의 손에 바리케이트가 쓰러지고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다.

한 시간여쯤 지난 뒤, 병원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사

람들은 바리케이트를 뒤로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찌는듯한 아스팔트를 걷고 돌아 한시간이 넘도록 걸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국 농업의 성장을 위해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살았던 한 농민운동가의 죽음은 삽시간에 전세계로 알려졌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그는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경해씨는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고 말했다. 한때 농민후계자이기도 했던 그는 한국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밀려오는 개방농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도 거리에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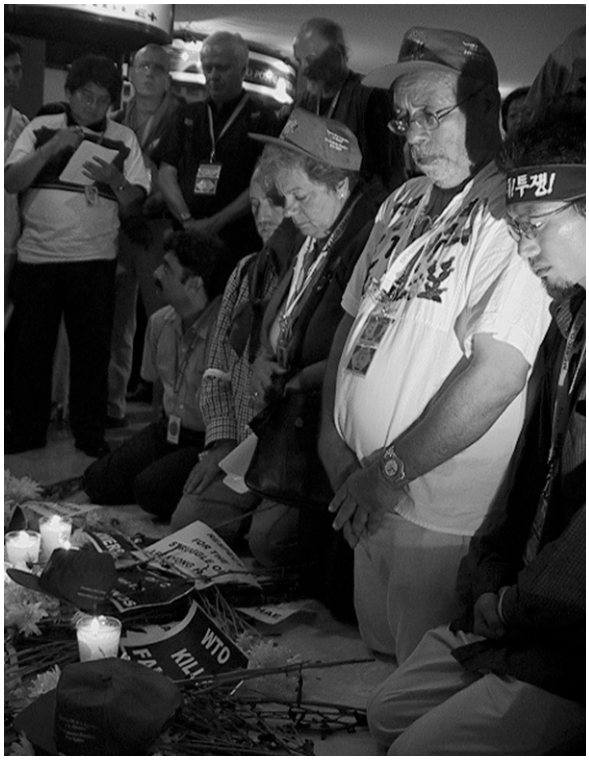
한국의 농민들, 세계농민들이 이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전세계가 이경해씨의 죽음과 WTO의 행보에 집중했다.

12일 늦은 저녁, 정부관계자들(농림부장관 등 협상대표단)이 또 다시 농민들을 찾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꺼낸다. 농민들은 더 할말이 없었다. 한국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를 먼 이국땅까지 건너와 또 들어야했다. "자신없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라도 있어야지" "자결해야 할 사람은 우리 농민들이 아니라 정부란 말입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9월 13일 /WTO,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다.

13일 아침, 한국 참가단의 눈빛이 남달랐다. 숙소를 나가기전, 낮에 기습시위가 있을 거라는 얘길 전해들었다. 한국 농민들은 각료회의 중단을 외치며 컨벤션센터를 향해 달렸다. 순식간에 회의장앞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경찰들이 험하게 달려들어 시위자들을 연행했다.

곳곳에서 각료회의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WTO각료회의는 초국적자본 그들만의 잔치였던 것이다. WTO의 거대한 벽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분노와 함성앞에 흔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코바 거리.

수천의 세계민중들이 호텔존으로 들어가는 입구 'km0' (사람들은 WTO 반세계화 투쟁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불렀다) 를 가로막은 거대한 바리케이트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들은 WTO와 거대자본 미국을 불태웠다. 꿈적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거대한 바리케이트는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서로 얼싸안고 춤을췄다. 저 거대한 세계자본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희망이 사람들에게 남았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한국농업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던 이경해씨 그는 차가운 시신으로 변했지만 남은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칸쿤에서의 추도식에서 비아캄페시나의 대표 라파엘은 "WTO가 농민을 죽였다. WTO가 전세계 농민을 죽였다는 이경해씨의 메시지는 모든 농민들의 가슴에 자리할 것" 이라고 전했다.

제5차 WTO 각료회의가 난항 끝에 칸쿤시각 14일 오후 2시경(한국시각 15일 새벽 4시)에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그린룸 회의(주요 25개국)에서 각국 대표들은 13일 배포된 각료선언문 초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국가 78개국) 대표와 개도국 대표들이 싱가폴 이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언문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칸쿤 각료회의 의장인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각국 협상단의 수석대표들이 참가하는 전체수석대표자회의(HOD)를 긴급하게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협상이 공식적으로 결렬될 경우 칸쿤 각료회의는 별도의 선언문 발표없이 오후 6시 칸쿤 컨벤션센터에서 폐막식을 갖는다.

칸쿤 각료회의는 일괄타결방식이기 때문에 농업, 비농산물, 싱가폴 이슈 등 각 분야별 협상에서 한 부분이라도 합의되지 않으며 선언문 작성을 할 수 없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분은 멕시코 시각으로 13일 조지여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각료선언문 초안을 제시했으나 관세상한 설정, TRQ증량 의무, 보조금 대폭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농업은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칸쿤에서의 9박 10일은 이땅 농촌의 현실이 어떤지 400만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무엇지 보여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단결해 저 거대자본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 세계민중들이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또다른 세계, 자본의 지배에 이끌려가지 않으려는 민중의 저항과 투쟁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또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는 12월 15일 WTO 특별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WTO가 농민을 죽였다"

싸움이 끝난 거리는 여유로워 보였다. 15일 칸쿤을 떠나던 날, 카리브해의 푸른바다에는 비키니차림의 여인들이 보트를 타고 있었고 코바거리의 분수대는 계속물을 뿜고 있었다. 각료회의 기간내 보이지 않던 멕시코주민들이 버스와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처음으로 교통체증을 경험한 날이었다. 경찰들은 바리케이트를 철거하고 있었고 한가하게 나무에 올라 야자수를 따는 모습도 보였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코바거리를 지났다. 저 자리에 이경해열사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경해씨의 모습과 한국 농민들의 모습은 코바거리를 지나는 멕시코인들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뜨거웠던 칸쿤에서의 9박 10일은 이땅 농민들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함께 있어 좋은 사람들

손일순 양심수후원회 회원

"엄마 나 안 갈래. 거기는 어른들만 있잖아. 재미없어" "아냐 형아, 거기에 장난감도 있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강좌를 들으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범수와 성수가 하는 얘기다. 성수는 엄마가 강의 들으러 간다고 하니 YMCA 교양 강좌에 가는 줄 알고 형을 설득하고 있다. 그것도 안 되는지 친구 집에 전화한다. 오후 시간 내 놀 수 있는지. 그러나 일요일 오후라 다들 손님이 와 있어 할 수 없이 엄마를 따라 낙성대 선생님 댁으로 향한다. 아빠는 출장 중.

가을이라 그런가 보다. 뭔가 가슴을 채우는 강좌를 찾아다니는 것이 힘들지만은 않고 즐겁기 그지없다.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법을 참을 줄 알고 배워나가야 하리라.

해방 이후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강의였다. 그간 접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비디오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승만이라는 한 인간의 확고부동한 가치관 - '북진통일론과 반공의식'

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자주적이고 민족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멀리했다. 또한 체제논리에 빠져 반공의식에 기반을 두어 외세(미국)에 기대어 통일을 하려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영향이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 통일의 적은 저 작은 나라 북한이 아니라 바로 저 거대한 나라 미국인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국방비 지출 대비만 봐도 1:130배가 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을….

이번 이라크 전쟁을 보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많은 무기를 이라크 국민을 향해 쏟아 붓지 않았는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불가침조약을 맺지 않는 걸까. 진정한 남북통일 방법은 어떤 것일까. 진정 우리 민족을 위하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통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뒤풀이 마당. 낙성대 '만남의 집' 에 준비되어 있던 막걸리와 순대, 호박전.

우리 텃밭에서 기른 호박을 강의 들으러 가기 전 따서 가져갔었는데 그걸로 준비한 호박전은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와 잘 어울렸다.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는 경임언니가 있어 더욱더 역사강좌 뒤풀이가 푸짐하고 어설프지 않은 듯하다. 참 고마우신 분이다.

주말 오후시간을 바쁜 여러 일정 속에서 소화해주시는 한상권 교수님에 대한 감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귀한 사람들과 시간을 내어 듣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역사강좌는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유해도 좋을 듯싶다.

주말 오후 꼭 시간 내어 와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구수한 삼베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이승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길을 가다보면 때론 양지쪽을 때론 음지쪽을 쫓아서 걷게 된다. 난 계절의 변화를 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행동에서 또한 실감하게 되곤 한다. 더위에는 음지를 추위에는 양지를 쫓아가는 그 변화의 지점이 아주 잠깐 사이이기에 어찌 보면 간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신체적 본능에 따르는 것임을 잘 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쪽에 서거나 좋은 쪽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렇다면 나는?

나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문득 문득 하게 된다. 인생의 전환점(?)을 코앞에 둔 탓이려니 여겨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엔 지나칠 정도로 이 생각에 몰두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사람 생각하며 참 많이도 울었던 그 숱한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간다. 한때는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는 속담을 애써 부정한 적도 있다. 세상일이란 돌고 도는 것이어서 처지가 뒤바뀌기도 한다는데 도무지 항상 거기가 거기고 그게 그건 것 같았던 것이다. 아마도 운동적 삶의 권태기에 빠질 때에 그랬던 것 같다. 또 한때는, 내 자신 늘 좋고 행복한 쪽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쪽의 길로만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을 친 적도 있다.

자기감정에 무작정 휩싸이다 보면 이성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가 힘든 법!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바보스러운 것임을 깨닫는다. 얼마 전 누군가가 나를 지칭하면서 운동적 삶이 아닌 생활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을 던졌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애초부터 그 '아닌 생활'로 살아왔더라면 난 어땠을까…

사심 없이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동지애적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동자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실감했던 민중들의 삶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영영 잊지 못할 장기수선생님과의 만남도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고시절까지도 정치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았으니 분명 사물에 대한 옳고 그름조차 가려볼 줄 모르고 휘둘렸을 것이다. 혹 가려보더라도 변화발전에 대한 사상적 신념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출소 후 뭘 해야 할지 헤매던 시절에 어영부영 시작했던 디자인 일, 지금껏 밥벌이가 되고 있는 이 디자인 일도 시작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 분위기로 보면 난 진즉에 결혼했을 법하다. 그런데 어느 주역선생이 말하길, 일찍 결혼했으면 불행하거나 깨져버렸을 팔자라고 하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하-!

나의 인생에선 정말 영 있을 것 같지 않던 그것을 이제 곧 하려 한다.

주변의 지인들이 결혼과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담과 조언을 해준다. 비단과 같은 부드러움 보다는 삼베와 같은 거칠음으로 더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누구나 흔히 겪으면서 가는 어려움들이라면 애써 피해가지 않으려 한다. 변화된 나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 안고 천천히 허나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 '아닌 생활'로 살아오지 않았음을 나의 삶에 있어 큰 행운으로 여기고, 거칠은 삼베가 아니라 구수한 삼베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음지쪽으로 가던 발걸음이 오늘은 양지쪽에서 서서 따스한 햇살을 찾게 되는걸 보니 얼마 안 있어 추위가 닥칠 모양이다. 가식과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정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로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따스한 겨울이 되길 바래본다.

COMBAT SOLDIER?

문화일보(이재용 화백)에서 퍼왔습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탁무권 운영위원께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0,000원과 여름수련회 부족분 1,000,000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가협 어머니들께서 여름수련회 부족분을 채우라고 200,000원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회원님께서 특별성금으로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화 회원님 매월 큰성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외 정성껏 회비를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에 맞게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후원회소식〉 편집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간 저희 〈후원회소식〉의 기획 및 제작은 한 분의 상근간사와 열다섯 분 정도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조금씩 제기되어 온 '소식지 편집팀의 내부 체계를 세우고 제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달 편집위원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식지 기획 및 제작을 '편집기획위원'이 맡아 하고, 나머지 분들은 편집위원으로서 혹은 소식지 제작지원 회원으로서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집기획위원은 상근간사와 박정범, 이승미, 하재광, 오영순, 여혜정(편집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편집기획위원과 편집위원 분들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 회원 역사기행 일정확정

양심수후원회 회원역사기행이 열한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3년 역사기행은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담양지역의 빨치산 전적지 답사와 전라북도 정읍 등 갑오농민전쟁 유적지 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창농민회 여러분들과 오늘의 농민, 농업문제도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려 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 제 : 2003. 11. 8~9일
▶어디로 : 전라북도순창 정읍, 전라남도담양지역
▶모이는 곳 : 지하철3호선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
▶모이는시간 : 2003. 11. 8 늦은 2시 30분
▶회 비 : *어른 60,000
*청소년 30,000
*초등학생(어린이 제외) 20,000
※ 가족단위로 오시는 경우 10,000원 할인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따뜻한 옷

※11월은 역사기행으로 인해 '역사강좌'와 '회원산행'은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일이있었어요

2003년 9월

01 연세대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한총련 정치수배 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유영업정치수배자 모임대표를 비롯한 한총련 소속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시민사회단체, 수배자 가족 등 30여명이 모인가운데 송용한(수배 7년) 학생사회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인사말 수배자 가족대표의 발언. 7·25 발표 이후 연행자 현황발표(사회자) 권오헌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연세대 5년차 수배생활을 하고 있던 오혜신학생이 서대문경찰서 수사계형사에 의해 신촌에서 강제 연행되다. 민가협, 수배자가족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강력항의 하다. 권오헌 대표와 연세대학생대표 오혜신학생 면회하고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만나 즉각 석방할것촉구. 학생들은 석방촉구 농성 밤 9시 20분에 조사받고 풀려나오다.
-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온 이북선수단과 응원단 10여일 일정마치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다. 떠나기 앞서 응원단 숙소 대구은행연수원 앞에서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이 주최하는 환송식이 있었음.

02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하셨던 김승훈 신부님(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 이날 새벽 2시 30분 별세하심.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조화'를 보내고 명동성당 빈소에 문상(이정규, 김호현, 소수영,권오헌, 송창학, 김숙희, 양계숙, 이득형, 김미성 등)

- 낙성대 '만남의 집'에 KBS 취재팀과 한겨레신문사 정순택, 박종린,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등 빈전향 장기수 2차 송환희망자 취재하다.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주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3돌 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를 열다. 2차 송환희망과 10여명과 사회단체 대표. 정신대 할머니 민가협 회원등 각계 각층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전행사로 송환관련 영상상영(푸른영상제작)이 있었고 이어 고난모임의 진광수목사 사회로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취지말, 노진민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이방규, 나창순, 조순던, 혜조스님의 2차 송환촉구 발언이 있었음. 문화공연으로는 노래패 '임하렛츠', 젊은소리꾼들의 모임 '바닥소리'의 공연이 있었음. 이어 송환희망자 정순덕, 정순택, 박종린 선생님들의 의견, 마지막으로 2차 송환촉구 성명서를 박용길, 홍근수목사님이 낭독했음. 이날 모임에는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의장 등 각계 사회단체가 함께 했음. 한편 이날 2부순서에서는 식사를 함께하며 지난 8·15민족대회때 1차 송환선생님들로부터 받아온, 이경구 선생님이 김송단님께 보내온 편지, 고 이종환 선생님이 이정규(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양딸에게 보내준 반지를 전해 드렸음.
- 10기 한총련의장 권한대행이었던 홍익대 윤경회 총학생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03 연세대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여중생 범대위, 민변, 전교조, 반미네트워크, 매향리대책위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미공병대 스트라이커부대 반전시위 구속자 대책위원회를 결성(상임대표 한상렬, 정광훈, 권오헌)하고 기자회견을 열다. 공동집행위원장 조양원 사회로 나창순, 권오헌 대표의 석방촉구 발언 한총련 대표의 입장발표, 한상렬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심재환 변호사의 변호인단 구성과 법정투쟁계획 등 발표가 있었음.

- 대검찰청 앞에서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연세대 등 한총련 정치수배학생 18명이 부모님들과 민가협 어머니, 소속대학학생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구속수배자 전원석방 수배문제 완전해결 한총련 합법화 촉구대회 및 출두기자 회견을 열고 수배지역별로 출두하다. 대회는 연세대 학생사회로 수배자 가족 정재진(정현익 부친)님의 발언. 권오헌, 서경순 민가협 대표의 촉구 발언. 이산라 수배자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이날 이산라 학생은 수배자 가족들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출두하다.
- 의정부지원 형사 1단독 부상준 판사 림리로 열린 이규재 8·15 통일선봉대 총대장 이규재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하다.
- 개혁 국민정당(대표 김원웅)은 성명을 발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하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30명의 2차 송환을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빠른시일안 송환을 촉구하다.
- 용산국방부 정문 앞에서 용산운동본부, 평통사, 민주노동당 등 공동으로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 결과 규탄대회'를 열고 천문학적 미군기지 이전

2003년 9월

비용 한국부담 반대와 평택 500만평 대체부지 반대,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 전력증강 국방비 증액반대 입장을 밝히다.

- 명동성당에서 고 김승훈 신부의 상례미사가 정진석 대주교 집전으로 열림. 이어 성당밖 마당에서 '고 김승훈(마티아)신부 민주사회장 장례준비 위원회' 주최로 5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고 김승훈(마티아)신부 민주사회장 영결식이 열렸음. 박석운 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민중의례, 약력소개(박순희)에 이어 이돈명, 오종렬의장의 조사 고은시인은 추모시, 박정기, 홍근수, 김상현, 권오헌, 박원순의 추도사, 정태춘의 추모노래 등으로 진행, 이어 문규현 신부의 호상인사, 참석자 헌화를 한 다음 용인 천주교 대교구 공원묘지에 묻히심.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정규, 권오헌이 장지까지 다녀왔음.

04 민가협 486회 목요집회 여는 말 - 조순덕 어머니, 자진출두 한총련 수배자들 상황보고- 김낙희어머니(이산라,단국대), 8/20 목포·부산지역 출두에 이어 9월 3일 서울지역 수배자들이 출두하였고 4일은 충청지역 수배자들이 출두. 서경순 어머니 -김승훈 신부님 추모발언과 최근 정세발언, 9월 3일 자진 출두한 연세대 수배자들이 조사를 받고 나와 인사, 출소인사- 윤경희 10기 한총련 대변인

05 5기 한총련의장 권한대행이었으며 97목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유영업 한총련 정치수배자모임 대표가 구속된지 15일만에 검찰의 구속취소로 목포교도소에서 풀려나다.

- 전남대에서 11기 한총련 하반기 임시대의원 대회가 열림. 사회단체대표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과 전국연합 오종렬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강희남 범남본 명예의장 등 격려.
- 서울 지법 형사 12단독 권대협 판사는 미공병대에 들어가 반전시위를 하며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대 유선민 학생에게 외국국기모독죄 등 적용, 단기 6월 장기10월 한국어대 이동현학생에게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다.

06 민가협 운영위원회 봉천동 임기란 전상임의장댁에서 열다. 2003년 양심수를 위한 시와노래의 밤 11월 20일경으로 앞당기는 문제,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용역사업으로 맡은일, 2003 회원 여름수련회 결산평가 등 있었음.

- 오후 6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286차 촛불집회 열다. 우위영 문예위원장 사회로 미공병단 반전시위와 관련 서울지법에서 유선민, 이동현 학생에게 유죄판결과 실형선고를 한데 대한 규탄집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김지은학생위원장 등 사법부의 굴욕재판 규탄,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주권과 정의는 있는가, 성명서를 홍근수목사가 낭독.

07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 교수의 역사강좌 제 15강 '이승만과 북진통일론' 강의가 있었음.

-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카운터 앞에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정현찬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한국 민중 칸쿤 투쟁단이 WTO 반대 5차 각료회담 저지 한국민중 칸쿤 투쟁단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칸쿤으로 떠남. 전농과 농민연대 등 110명과 노동자 40명 WTO 반대국민연맹 등 민중연대 소속 13개단체 교육, 환경 공무원 등 188명이 출발예정.

08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이신라, 조용수, 장정규 학우석방! 정치수배 전면해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세대와 단국대 총학생회 주최로 한총련 소속 구속학생과 수배자 가족, 단국대, 연세대, 동국대, 중앙대, 숭실대생 등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림. 단국대 안은미 학생 사회로 이신라 어머니 김낙희님 등 가족발언, 김진의 단국대 총학생회장, 남두형 연세대 문과대 부학생회장 등 각 대학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서울지검 앞으로 이동 구속학우석방, 촉구집회를 열다. 권오헌, 연대사를 통해 자진출두 학생을 구속한데 규탄하고 즉각석방을 촉구함.

- 광화문교보빌딩 앞에서 '전쟁을 고발한 용기있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국민변호인단 결성대회'를 열다. 짐재환 변호사의 변호인단 구성과 법정 투쟁계획 등 발표, 변호인단장에는 이기욱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 맡기로함. 마지막으로 결성문 선언문을 홍근수 목사가 낭독했음. 이어 같은 자리에서 '미군주둔 58년 규탄 촛불행진이 진행 되다. 권오헌 대표와 청년, 학생 대표 등 규탄 발언을 하다.

09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과 우대식 대변인이 지난 5~7일사이 전남대에서 진행된 11기 한총련 하반기 대의원대회 보고 기자회견을 열다. 새시대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한총련의 민주적 조직운영을 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규약개정을 했다며 한해의 조직구성과 노선확립 등이 책임과 권한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해연도의 본조직에서 모두 일임하고 그 외 자문위원회 신설 하반기 투쟁으로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반미반전 평화수호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정권창건 55돌 (9.9절)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열병식과 100만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시가행진)그리고 청년, 학생들의 야회와 횃불행진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9.9절 행사에서 김영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수단으로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했고 '우리 인민군대는 전체인민과 일심동체가 되어 미제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정책에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갈것'이라고 강조.
-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라크치안유지 차원에서 한국정부에 전투병파병을 요청해 왔다고 발표하다. 지난 3~4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협의회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말한 것으로 보도되다.

10 4·19혁명뒤 중앙사회당 조직위원장 등을 맡아 통일운동을 하다가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붙잡혀 군사재판에서 사법살인당한 고 최백근전쟁 묘소를 통료들과 함께 참배.

11 세계 무역기구(WTO)제5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칸쿤에서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경해 전회장이 WTO 반대시위도중 활복해 병원에 옮겼으나 오후 3시 30분 숨을 거두었다고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이 밝힘. 칸쿤에는 한국칸쿤 투쟁단 200여명이 WTO 반대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투쟁중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준호씨를 면회하다. (권오헌)

12 망막박리증으로 눈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통일광장 권낙기대표를 영등포김안과로 문병다녀오다. (김호현, 권오헌) 지난 9일에도 이정규, 소수영, 변세현님이 문병을 다녀왔음. 빠른 회복을 빕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을 찾아 뵙고 속내의를 사드렸습니다.(김호현, 권오헌)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전국민중연대, 전국농민연대 WTO반대 국민행동 등 공동주최로 故 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헛되지 말라 노무현 정부는 WTO각료회의 한국정부 협상단을 즉각 철수시키라는 기자회견을 열다. 단병호위원장 한농연 김홍기 수석부회장의 규탄발언과 오종렬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13 태풍 '매미' 남해안과 경남·북을 강타 많은 인명희생과 재산피해를 내고 동해로 빠져나가다.

-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이라크 전투병력 파병요청을 해왔다고 시인.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가 반기문 외교안보 보좌관에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파병 요청을 했다고 보도되다. 그러나 정작은 6자회담 뒤 미국을 방문했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부시가 직접 말한 것으로 보도되다. 민중연대는 성명을 내고 '석유 장악과 군사패권강화 등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굴종'이라고 반대하다.

14 제 14호 태풍 매미가 관통하면서 115명이 사망·실종되었고 수몰지역에 아직도 더많은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 정부에서는 태풍 재해지역 월말게 선포할 것으로 보도.

- 이른바 '태평양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일본·호주·프랑스 합동으로 호주 동북부 산호해에서 13일 대량 살상무기 수송 저지 해장훈련에 들어갔다고 언론이 보도 하다. 그러나 국제법상 해적선 노예수송선 등 의심선박이나 무국적 선박에만 공해상에서 강제정선이 가능한데 '대량 살상무기 방지구상(PSI)에 따른 미국의 주도로 감행된 이 훈련은 해적행위이며 반평화, 전쟁광에 지나지 않는다.

15 중앙일보 영자신문기자 낙성대 만남의 집에 와서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과 관련 권오헌 대표와 인터뷰, 이어 정순택, 김영식 선생님 취재하다.

2003년 9월

- 정부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 조정회의때 리처드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청와대에 와서 경보병 3천~1만명 규모(사단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공식 요청해 왔다고 밝힘. 그러나 참여연대, 9·27 국제 반전공동행동 등은 강력 반발하다.
- 법무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 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을 비준한데 따른 이행입법 조치라고 밝힘.
- 이시바 시게루 일본방위정 장관은 이북의 일본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이북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영국 일간지〈인디펜던트〉가 보도 미국의 품안에서 인하무인이 되고있는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가 칸쿤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폐막되다.

16 청와대 앞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참여연대, YMCA 등 35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홍근수목사의 취지말, 한상렬(통일연대), 천영세(민주노동당), 박상환(민교협),이학영(YMCA)등 각계대표 파병반대 발언에 이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여성단체연합 정현백대표가 기자회견문을 읽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의실에서 가칭 '남산 옛 안기부 터 역사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구성등 및 인권공원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조직체계와 공동대표 집해위원장 등 선임하다.

17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1단독 부상준 판사는 스트라이커 부대 반전평화시위 학생들의 연행에 항의하여 구속 기소된 8·15 통일선봉대장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과 조미덥(고대), 최고운(외대)학생에게 10월과 8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법정에서 바로 풀려나다. 법원 앞 삼거리에서 미공병단 스트라이커 부대 시위 구속자 석방대책위 주최로 이규재선생 석방환영 및 구속 학생 석방 촉구 대회를 열다.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사회로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 연합의장의 환영사,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석방촉구 대회사, 이규재, 조미덥의 인사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석방촉구 연설 등이 있었음.

- 스트라이커 부대 반전시위로 구속 기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혜민(외대, 왕산)학생과 정도영(경희대 수원)학생 면회하다. 박정숙, 김선분, 한기명, 권오헌)
- 후원회 소식 143호 원고 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기다.(이승미, 김미성)

18 민가협 487회 목요집회 : 여는 말 - 임선순어머니, 서경순 어머니-이경해 열사 추모발언과 이라크 파병반대 발언, 이규재 선생님 석방인사.

-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필동 '미디어 창' 사무실(김호현 운영위원사무실)에서 열다. 활동보고, 회계보고, 여름수련회 총괄보고가 있었고, 여름수련회 비용부족처리문제,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문제, 이기욱 부회장이 제안한 송환비전향장기수 상봉사업문제 등 논의하다.
- 미 8군사령부는 수원 한국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서 PAC-3 배치에 대한 브리핑을 갖다. 브리핑에서 미군당국은 이른바 전력증강계획에 따른 개량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이남땅에 배치완료 했다고 발표. 이는 미국이 이 땅에서 전쟁책동을 부추기며 이남을 MD체제로 편업을 강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 국가정보원은 오는 22일 고국을 찾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조사를 하겠다며 서울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지검 공안 1부는 서울지접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다.
- 부산지법 형사 1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1980년 초 군부독재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 었던 '부림사건' 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아무개씨 등 2명이 99년에 낸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

19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스트라이커 부대 반전시위를 벌였던 한총련 소속학생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훈기자에게 징역5년을, 김식 학생 등에게는 3년에서 1년까지 징역형을 구형하다. 이에 장경욱, 김승교 변호사와 학생들은 미군부대에 들어간 것과 반전평화 시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미국의 부당한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민족적 양심에

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성을 주장. 마치고 법원 삼거리에서 석방대책위 주최로 검찰구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주식 군의 아버지 김대혁씨의 규탄 발언 등이 있었음. 이어 스트라이커 반전시위 무죄석방을 위한 도보순례단을 결성하다.

- 일본과 독일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와 통일위해 헌신해 왔던 해외 민주인사 33명이 많게는 43년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땅에 들어오다.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양동민 부의장(범민련 일본지역본부의장) 등 29명과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 한독문화원장 등 4명 모두 33명은 도착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갑자기 피로로 쓰러져 오지 못한 한통연 곽동의 의장의 도착성명서를 양동민 부의장이 낭독하다. 공항에는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최병모 회장 등 환영사를 하다. 이들 33명은 기독교회관으로 옮겨 점심식사를 하고 범국민 추진위가 주최하는 '9월 한가위 맞이 해외 민주인사 고국 방문 환영식' 에 함께 했음. 임종인 대책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우리나라' 의 문화공연에 이어 추진위원회 경과보고, 해외 민주인사 소개 및 꽃다발 증정(민가협 어머니들)이창복의원과 오종렬 의장의 환영사, 김성수 원장, 양동민 부의장 등 인사말, 해외민주인사 귀국관련 성명서 낭독(백도웅)에 이어 기념촬영 등이 있었음. 또한 저녁 7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환영만찬이 이기욱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사회로 진행 되었음. 이들 해외인사들은 9.20 광주로 떠나 망월동 5 · 18 국립묘지 참배, 21일엔 부산으로 이동 부산 민주공원 및 공연관람, 환영만찬 등에 참석하고 22일 서울로 올라와 향린교회에서 환송식에 함께하고 일부 방문단은 일본으로 돌아가게됨.

20 강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이경해열사 세계농민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농민운동가 故이경해 열사 세계농민장 영결식이 열렸음. 한농연 김홍기 수석부회장 사회로 심명훈 한농연 사업부장의 약력소개에 이어 장례위원장 서정희 한농연 회장의 영결사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현찬 의장의 해외대표 추도사 대독, 이경해열사의 칸쿤투쟁에서의 육성연설 등이 있었음. 마치고 농민들 주장에 따라 청와대로 영구차를 돌리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저지로 무산, 송파경찰서장의 폭력저지에 대한 사과를 받고 장수장지로 출발. 고향땅에 묻힘.

-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 재일한통연 양동민 분의장 등 대표 4명이 동교동 자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 30년만의 해후를 하다. 동교동 방문에는 곽수남 부의장, 송형근 사무총장, 김정부 기획실장이 함께 했음.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문제와 관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련자료를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보내다.
- 8차 이산가족 상봉단 남쪽 가족 453명이 금강산에 도착, 북측가족 100명과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다.

21 양심수후원회 9월 산행이 있었음. 우이동 그린파크앞에 모여 고향산천 소귀천계곡, 진달래 능선, 운가사, 아카데미 하우스로 내려오는 짧은 산행을 했음. 이런저런일로 회원들이 많이 못왔으나 모처럼만의 쾌창한 날씨에 맑은 공기 마시며 아직도 푸르른 짙은 숲을 헤치고 초가을 정취를 즐겼음. 점심시간에 지난 19일 고국땅을 밟은 해외 민주인사 고국방문 의미 등 시사문제를 이야기 했음. 김수룡, 변숙현, 송세영, 이창희, 권오헌 함께.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 범대위 주최로 한미소파 전면개정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이라크 파병반대 오만한 미국반대 광화문 300회 자주평화 촛불행진 진행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문상봉선생님, 김미성, 김숙희, 권오헌 함께.

22 향린교회에서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단 환송식을 추진위원회 주최로 진행하다. 마치고 일본에서 온 한통연 성원들은 일본으로 떠남.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단으로 독일에서 온 신옥자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 정순택 선생님등 비전향 장기수를 찾아 뵙고 말씀을 나누었음. 신옥자님은 유럽 범민련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선생님 등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을 해오고 있었음.

2003년 9월

- 동대문 전노련 사무실에서 계승연대 대표(오종렬, 권오헌, 한충목, 박희영 외)등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계승연대 추천 민간조산관들 진상규명조사 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갖다.
- '친북인사'로 분리돼 입국이 금지돼 왔던 재독철학자 송두율교수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부인 정정희씨 아들 준(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린(소아과 전문의)과 함께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다. 송교수 일행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기념사업회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대화의 집'에서 주최한 환연만찬에 참석 오랜 친지와 초청 단체성원들과 만나다.

23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이라크파병반대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과 대국민호소문등 채택하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351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단체 소개에 이어 비상시국회의 결과발표 파병반대 발언(정광훈, 권영길, 최열, 한상렬) 파병반대 국민행동 발표(이김현숙)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크파병을 막기위한 비상국민행동 호소문'을 정현백, 유덕상 등이 낭독하다.

- 안국동 아름다운가게로 박원순 상임이사를 찾아 뵙고 양심수후원회 사업과 관련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문제등 지원을 요청 긍정적 답변을 받다(권오헌)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찾아온 한신대 민주동문회 회지 편집장과 양심수후원회 사업과 국가보안법 관련 인터뷰를 하다.(권오헌)
- 광화문 열린시민 마당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용산운동본부 매향리 대책위 등 공동으로 48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대회에서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미래 한·미동맹회의 규탄, 매향리 폭격장 폐쇄 등 요구하고 부시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채택 미대사관에 전달하다.

24 서울지검 앞에서 '이산라, 조용수 구속규탄, 정치수배해제,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산라, 조용수 석방 공동채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다. 단국대 손지승 부총학생회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취지말, 한총련 대의원 구속되었다 풀려난 송용한씨의 석방촉구 발언, 권오헌, 정재진씨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권오헌 대표와 이산라, 조용수 부모는 송지섭 담당검사를 면담하고 자진출두한 학생을 구속한데 강력항의 하고 불구속 수사·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킬 것 촉구하다.

- 양심수후원회 회원 활동인 기획모임이 광화문에서 있었음. 2003 회원 역사기행 문제등 논의하다.

25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한나라당 최병렬 사대매국 반통일 방미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민 경우 사무처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의장의 취지말. 윤한탁 실천연대 대표와 한총련대표의 규탄발언. 한상렬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민가협 488회 목요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석방하라' 여는 노래아우성(성균관대 사회대 노래패), 여는말 -조순덕회장님, 이라크는 한국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 은국(예비병역거부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병역거부를 하겠다 - 김태훈(서울대, 예비병역거부자),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병역거부 - 앙마(팔레스타인해방연대), 미국의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 이관복선생님, 시낭독 - 정재성(예비병역거부자), 권정생 '애국자가없는 세상'

26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촉구 운동 본부 주최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 한국군 파병 요구에 대한 주한 미대사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다. 실천연대 윤한탁 대표의 취지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파병반대 발언, 홍석영의 질의서 낭독등이 있었고, 부시가면을 쓴 군인이 노무현 대통령 가면을 쓴 군인의 목을 끌고 전장으로 가려하는 포퍼먼스도 있었음.

- 연세대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한총련과 범청학련 주최로 신념의 강자 11기 한총련 의장권한대행 윤경회 2002 홍익대 총학생회장의 석방환영식이 있었음. 이상민 홍익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한총련 우대식 대변인과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 사회단체 대표로 윤한탁, 권낙기, 권오헌의 환영사에 이어 윤경회 10기 한총련 대변인 소감과 인사말이 었었고 마지막으로 정재욱 11기 한총련의장과 범청학련 윤기진 의장의 결의 발언 등이 있었음.
-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관련 선고공판에서 6명 모두에게 유죄선고

를 하고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주·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송금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유효하고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한다'고 밝힘.

- 임종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49명의 청년 경제문화교류단과 정상옥 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160여명의 북녘역사유적 답사단이 지난9.22-26까지 4박 5일 방북일정을 마치고 이날 직항로로 도착하다. 청년학생들 160여명은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한총련 주최로 하는 환영식에 함께하여 정재욱 의장의 환영사와 답사학생들의 방문인사가 있었음.

27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9·27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주최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한국전투병반대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성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반대 9·27 국제 반전공동행동 집회를 열다. 사전행사로 9·27 이라크전쟁 희생자 추모와 한국군 파병반대를 위한 천주교, 개신교 연합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반전 콘서트도 있었음. 본 집회는 9·27 조직위 연락간사 김광일씨 사회로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여는말, 부상당한채 등단한 이라크군인 Vassian H Mosstaf씨와 참가단체 대표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중연대 정광훈, 민주노총 김형탁, 영화인 이병헌,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율, 서울대 총학생회장 박경렬 등이 반전평화 파병반대 연설을 했고 국제연대 메시지 낭독(청소년 반전모임), 결의문 낭독(홍근수목사)등으로 모두 마침. 함께한 5천여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는 탑골공원까지 행진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함 양심수후원회에서도 문상봉선생님, 송창학, 이승미, 변의숙, 김숙희, 김미성, 권오헌 함께함.

- 저녁 7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미공병대 스트라이커 투쟁 구속자 전원석방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1부 전쟁훈련반대 투쟁 구속자석방 촉구대회,는 김지은 학생사회로 학생 율동패 공연에 이어 도보순례단 보고, 스트라이커 반전시위 영상, 투쟁참가단 발언과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고 2부 전쟁반대 파병반대 ,구속자전원 석방 촛불문화제는 김배곤 사회로 '희망상 아름다운청년, 꽃다지' 등 공연과 구속자 석방 촉구연설, 전쟁위협, 이경해씨 살인, 이라크 파병요구 등 미국규탄 내용의 발언이 있었음. 송창학, 김미성, 김숙희, 권오헌 함께.
- 제주 민족통일 평화체육문화 축전의 성화채취 남측대표단 김원응의원 외 29(기자 18명) 이날 직항로 평양에 도착하다. 대표단은 백두산에서 평화축전 성화채취를 비롯하여 4박 5일간 평양시내와 서해 갑문 등을 둘러 볼 예정이다.

29 명동 우리은행앞 네거리에서 금강산 평화사업국민운동본부에서 '제3차 현대아산 주식갖기 캠페인 벌이다.

- 재독 철학자 송두율교수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1973년 첫 평양 방문때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으나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김형태 변호사가 밝힘.

30 경기도 수원지검 앞에서 경기 민중연대 한총련 합법화 경기지역 대책위원회 경기남부청련(준)등 공동으로 구속학생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와 수원 남부 경찰서 불법연행 규탄집회를 열다. 경기민중연대 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원회 대표의 구속학생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촉구 연설 한총련 대의원 수배자 최재승 아버지의 규탄발언, 결의문 채택 등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헌 대표와 최재승, 정현익 아버지 등 정지영 검사를 면담하고 맹관호 아주대 02년 총학생회장 구속 기소, 김성훈 동아리 연합회장 구속에 엄중항의하고 김성훈 학생을 구속취소하여 석방할 것을 촉구하다. 이어 남부경찰서에 가서 김성훈 학생 면회하다.

-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남측참가단 300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평양세서 온 고려 민항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순안빙행장에도착 북측관계자의 환영을 받다.
- 민주노동당은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작전지휘권 조기이양, 미군훈련과 무기배치에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 한국사법 주권 침해조항 개정 등 촉구하다.
- 양심수우원회 편집위원회, 인사동 아지오에서 편집회의를 열고 앞으로 편집위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식지 내용을 알차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양심수 112명에 영치금 1만원씩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500,000원 보냄.

분 류		결 산		비 고
총수입액	회 비 (참가인원76명)	장기수 선생님 : 240,000 민가협 어머니: 420,000 회원회비: 1,208,000	1,868,000	
숙박 및 식대	1박 2일	숙박비	680,000	
		노래방 사용	100,000	
	저 녁	80인×6,000	480,000	
	입 장 료	단체 30×800	24,000	
	점 심	55인×5,000 공기추가 4,000	279,000	
	소 계		2,043,000	
준비물 및 상품	게임, 비상약등		83,550	
	양 말	18,000	50,000	
	손 수 건	32,000		
	문화상품권	11×5,000	55,000	
	소 계		188,550	
뒤풀이	막 걸 리	2Box × 30,000	60,000	
	소 주	1Bx × 8,500	8,500	
	맥 주	24×1,350	32,400	
	안 주	파전 재료 등	84,130	
	소 계		185,030	
관광버스 및 기차	관광버스	1대	200,000	
	일 반	36인×1,400 반납료 :24×400	60,000	
	경 로 석	10×700	7,000	
	소 계		267,000	
현수막 등	직 사 각	1×1	50,000	
	정 사 각	2×1	100,000	
	이 름 표	100개	50,000	
	소 계		200,000	
지 출 총 계			2,883,580	특별회비 1,200,000원은 9월 회비로 수련회 부족금 1,015,580원을 채우고, 남은 184,420원은 후원회 일반회계로 입급되었습니다. 특별성금을 해주신 탁무권 운영위원과 민가협 어머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차 액 금			–1,015,580	
특 별 회 비		탁무권 운영위원 1,000,000 민가협어머니들 200,000	1,200,000	
잔 액			184,420	